

25세 KAIST 박사님!

이슬기씨, 5년 만에 학위 받아

“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뒤 한국으로 돌아와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다.”

24일 카이스트(KAIST)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과 이슬기 박사(25·사진)가 졸업생 중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받았다.

1987년생인 이슬기 박사는 서울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, 2004년 카이스트에 입학해 3년 만에 학부과정을 마쳤다. 학부 때부터 정보통신과 의료기술을 접목한 ‘웨어러블 헬스케어’ 분야에 관심을 갖고 대



학원에 진학했다. ‘웨어러블 헬스케어를 위한 저전력의 인체영역 센서네트워크에 관한 연구’란 제목으로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.

이 박사는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 11개를 발표하고, 특허를 10개 출원했다. 지난해 3월 ‘가정형 수면다원검사 시스템’을 개발, 주목을 받았다. 논문을 발표한 곳은 세계 최고 학술대회인 국제고체회로소자회의(ISSCC, International Solid-State Circuit Conference)를 포함해 미국, 일본, 유럽, 대만 등에서 주최한 학회이다.

대전=정재학 기자 jhjeong@kmib.co.kr